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 일 예 배 2025년 11월 30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찬송가 23(신) 23(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76번 (요한복음 1장)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저 발에 농부 나가 / 찬송가 591(신)310(구)

기도 / 박송화 집사

성경 봉독 / 시편 110편 1-7절 / 다같이

말씀 선포 / 새벽 이슬 같은 사람들 / 박화신 목사

찬송 /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 찬송가 569(신) 442(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허락하신 새 땅에 / 찬송가 347(신) 382(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흔들리지 않는 주권

세상은 불공평하고 혼란스럽지만, 메시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합니다.

2. 기꺼이 나아가는 심령

‘청년들’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마음이 새벽 이슬처럼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3. 오늘의 도전과 소망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기꺼이 내게 오너라.” 나이와 상관없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생명샘 장로교회 2025년 표어

디모데전서 4장 15-16절

15 이 모든 일에 전심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지난 주일 설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시편 73편

살다 보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데도 길이 막힌 것처럼 느껴지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더 쉽게,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비교와 억울함이 올라오고, 믿음의 걸음도 흔들리기 쉽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런 자리에서 “내 발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다시 바른 방향을 찾은 순간은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나이다.” 성소는 단순히 예배당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리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말하도록 멈추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시편 기자는 외적인 성공이 전부 아님을 보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애쓰지만, 먼저 성소에 들어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비교로 흔들릴 때, 억울함이 마음을 삼킬 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 기도하는 자리, 말씀 한 구절을 붙잡는 자리, 한숨 대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의 성소가 됩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마음이 달라지면 길이 보입니다. 문제가 남아 있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평안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를 의도적으로 만드십시오.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새 힘을 얻고, 감사가 다시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마음보다 크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 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 라는 표어로 남은 귀한 시간들을 끝까지 정진하셔서 귀한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다음 주일 예배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오늘 예배와 친교 후에 전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6. 12월 4일 목요일 저녁 8시에 영상으로 재정 운영위원회로 모입니다.
7. 12월 7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정기 제직회로 모입니다.
8. 이번 주 기도제목
전교회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정호(미얀마), 강승우(파라과이) 선교사님 위해
금요 성경공부(골로새서)에 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교우들의 건강과 기도제목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월 예 배 위 원

안 내	박래석	최명희
기 도	한광기(7)	최명희(14) 최상천(21) 조은영(28)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신앙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변화되겠지” 하는 마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좋은 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만 순종이 되고, 불편해야만 헌신이 됩니다.

편안함을 지키려는 신앙은 결국 제자리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구경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움직이라는 부르심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기도했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제 마음속에서는 이런 질문이 계속 울립니다.

“너는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국 이 질문에 대답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가 머뭇거림을 끊어내고,

믿음의 작은 한 걸음이라도 실제로 내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동하는 신앙인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주 안에서 도전합니다.

박화신 목사 드림